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형성: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한 통전적 성경 읽기와 실천적 적용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신동훈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Donghoon Sh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THROUGH THE BIBLICAL META-NARRATIVE:
A HOLISTIC APPROACH TO BIBLE REA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NEW AND YOUNG BELIEVERS**

Donghoon Shin

Seoul, Korea

This dissertation aims to present a practical pastoral methodology for helping new believers form a holistic Christian worldview within a postmodern culture dominated by fragmented narratives. Many contemporary Christians experience a disconnect between faith and life due to understanding the Bible as a mere collection of fragmented knowledge.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argue for the effectiveness of approaching the entire Bible as a single grand story, or a meta-narrative, as an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was first conducted to defin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meta-narrative and worldview form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human beings are "narrative beings." The study analyzed how the core biblical meta-narrative of 'Creation-Fall-Redemption-Restoration' constitutes the framework of a Christian worldview and how it is internalized through the repetitive practices of a community, as theorized by James K. A. Smith. Furthermore, it examined the challenges

posed by modern culture (e.g., expressive individualism, consumerism) and explored the pastoral applicability of the meta-narrative through the preceding case studies of Tim Keller and Leonard Sweet.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a three-stage integrated discipleship program—'Gospel-Sharing,' 'Tong-Bible (Holistic Bible Reading),' and 'Dawn with the Lord (QT)'—was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researcher's pastoral fiel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analyzing participants' written reflection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faith. Participants re-established their identity by relocating their personal narratives within the grand narrative of the Bible (Gospel-Sharing), acquired a new lens to interpret the world by integrating scattered biblical knowledge (Tong-Bible), and experienced the internalization of their worldview through daily practices (Dawn with the Lord).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 holistic discipleship model based on the biblical meta-narrative is an effective pastoral model for forming the worldview of new believers. This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a crucial shift from conventional cognitive and doctrine-centered education toward a formational education that helps believers move from merely 'knowing the Bible' to 'living out the story of the Bible.'

Keywords: Meta-narrative, Christian Worldview, New Believer Discipleship, Holistic Bible Reading, Pastoral Methodology, Formational Education

국문초록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형성: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한 통전적 성경 읽기와 실천적 적용

신 동 훈

서울, 대한민국

본 논문은 파편화된 서사가 지배하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새신자와 초신자들이 통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실천적 목회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이 성경을 단편적인 지식의 총합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로 접근하는 방식의 유효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인간이 ‘서사적 존재’라는 점에 기초하여 메타 내러티브와 세계관 형성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성경의 핵심 메타 내러티브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조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의 뼈대를 이루며, 제임스 K. A. 스미스의 이론처럼 공동체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내면화되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현대 문화의 도전(표현적 개인주의, 소비주의 등)을 분석하고, 팀 켈러와 레너드 스윗의 선행 사례를 통해 메타 내러티브의 목회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서 ‘복음나눔’, ‘통성

경’, ‘주함께새벽’이라는 세 단계의 통합적 양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소감문,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안된 방법론이 참여자들의 신앙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서사를 성경의 거대 서사 안에 재배치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했고(복음나눔), 흠어진 성경 지식을 통합하여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를 획득했으며(통성경), 일상의 실천을 통해 세계관을 내면화하는(주함께새벽) 과정을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에 기반한 통전적 양육 방식이 새신자와 초신자의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유효한 목회적 모델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인지적·교리 중심 교육을 넘어, 신자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형성 중심 교육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메타 내러티브, 기독교 세계관, 새신자 양육, 통전적 성경 읽기, 목회 방법론, 형성 중심 교육

목 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제 I 장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한계.....	4
제 II 장 이론적 배경: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와 세계관.....	6
A. 메타 내러티브 개념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이해.....	6
B.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과 구성 요소.....	9
C.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대서사.....	11
D. 세계관을 내면화하는 서사적 훈련방식의 대서사.....	13
제 III 장 시대적 도전: 현대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	16
A. 거대 서사의 해체와 현대 문화의 도전.....	16
B. 세속 문화에 대한 성경의 대안적 응답.....	19
제 IV 장 선행 사례 연구: 메타 내러티브의 목회적 적용.....	22
A. 팀 켈러: 복음 중심적 상황화와 변증 전략.....	22
B. 레너드 스윗: 포스트모던 시대의 감성적·체험적 소통 전략.....	25
C. 두 사례의 비교 분석과 본 연구의 방향성.....	26

제 V 장 목회 현장 적용: 통전적 세계관 형성 프로그램의 설계와 방법.....	29
A. 1 단계 ‘복음나눔’ : 내러티브를 통한 자기 이해와 복음의 뼈대.....	29
B. 2 단계 ‘통성경’ :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34
C. 3 단계 ‘주함께새벽’ : 일상 속 내러티브의 내면화와 실천.....	40
제 VI 장 연구 결과 및 분석.....	45
A. ‘복음나눔’ 적용 결과 분석: 서사적 자기 이해의 시작.....	45
B. ‘통성경’ 적용 결과 분석: 거대 서사의 확립.....	48
C. ‘주함께새벽’ 적용 결과 분석: 일상 속 세계관의 내면화.....	52
D. 종합 논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과제.....	55
제 VII 장 결론	59
A. 연구 요약 및 최종 논증.....	59
B. 연구의 의의	60
C.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61
D. 맺음말	62
참고문헌	64
부 록	69

표 목차

<표 1> 팀 켈러와 레너드 스윗의 전략 비교.....	27
<표 2> 성경 66 권을 역사 순 배열.....	36

그림 목차

<그림 1> 내 삶의 우선순위 진단표.....	32
<그림 2>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33
<그림 3> 통성경 봄학기 자료.....	38
<그림 4> 통성경 가을학기 자료.....	39
<그림 5> 주함계새벽 표지 디자인.....	42
<그림 6> 주함계새벽 유튜브 채널.....	44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목회 현장에서 늘 마주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 신앙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이는 신앙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그 달라진 시선을 통해 삶의 문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근본적인 전환을 말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변화의 동력과 과정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모색하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목회적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하는 존재(Homo Narrans)’이다.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단지 조각난 사건으로 차례차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하나의 의미 체계 안에서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빚어낸다. 철학자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이러한 접근을 “나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다”¹는 말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정체성이 ‘서사적 자아(narrative identity)’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문학적

¹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14.

수사를 넘어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운영체제(OS)와 같다.²

이러한 인간의 본질은 신앙과 만날 때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리적 명제에 동의하거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Doing)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나의 자리를 발견(Being)하고, 그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전인격적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파편 같던 내 삶의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이루어 가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대한 전제는 매우 낮은 개념이다. 현대사회를 가장 특징적으로 규정짓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속 문화는 보편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감성의 차원으로 돌리기

² 이러한 통찰은 리코르 외에도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월터 피셔(Walter R. Fisher)는 “Homo Narrans”라는 개념과 내러티브 패러다임 이론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영웅의 여정(Hero’s Journey)’ 개념과 다양한 문화의 신화를 분석해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는 인간의 자아 형성과 이야기를 통한 세계 이해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Walter R. Fisher, *Human Communication as Narration: Toward a Philosophy of Reason, Value, and Action*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7), 58-59;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30-47.;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1-25; Jerome Bruner,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3-16.

일쭉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커다란 이야기는 케케묵은 신화처럼 치부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신앙인에게 성경은 길 없는 길을 걸어가는 나침반일진대, 성경을 통해 인생을 향해하는 방향성을 찾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말씀을 골라먹으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뷔페식 성경읽기’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결과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기보다는 위로와 교훈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심리적 안정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따라서 교회는 이야기가 깨어져 나가 파편화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서사를 탁월하게 압도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의 커다란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이를 새신자와 초신자가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성경의 거대 서사가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틀’을 만드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파편화된 성경 지식을 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회 방법론- ‘복음나눔’, ‘통성경’, ‘주함께새벽’-을 설계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훈련 방법에 참여한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답변과 변화를 분석하여 이것이 목회적으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한 목회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실제적인 적용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제Ⅱ장에서는 메타 내러티브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논의를 고찰하고, 제Ⅲ장에서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마주하는 충돌지점을 확인한다. 이것은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도전의 자리이다.

둘째, 선행 사례분석을 통해 목회적 전략을 구상한다. 제Ⅳ장에서는 현대 문화 속에서 메타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주자로 팀 켈러(Tim Keller)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사역과 저술, 방법론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세계관 교육을 위한 핵심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연구자의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앞에서 소개한 이론을 기반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서 새신자와 초신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통합적 양육 체계- ‘복음나눔’, ‘통성경’, ‘주함께새벽’-의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제Ⅵ장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 소감문, 인터뷰 등의 질적 조사를 통하여 이 과정이 참여자의 세계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광범위한 통계를 통한 일반화가 아닌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에 대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계적 검증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내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유효성이 있다.

둘째, 결과는 연구자의 목회 현장(case)이라는 특정 사례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적인 구성원에 의해 영향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사례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례 너머에 있는 원리 도출을 통해 다양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연구자 자신이 프로그램의 설계자, 실행자, 평가자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주관의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적용한 것들이다.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평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이나 인터뷰 녹취록 등 객관적인 1차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신학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초신자의 신앙 형성 방법론이다. 따라서 목회적·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와 세계관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초신자의 신앙 형성을 위한 실천적 연구에 초점을 두겠다.

제 II 장

이론적 기반: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와 세계관

A. 메타 내러티브 개념에 대한 철학적 · 신학적 이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전개해 나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과 감정은 하나의 조각난 사건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하나의 의미 체계 안에서 인과성을 가지고 저장된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빚어낸다. 이런 맥락에서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인간의 행위가 오직 서사적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³ 철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서사적 자아(narrative identity)’라는 개념을 전개시킨다. 그는 “나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⁴고 역설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듣고 믿고 살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존재임을 주장했다.⁵ 이처럼 내러티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을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틀로 작동한다.

³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216.

⁴ Ricoeur, *Oneself as Another*, 114.

⁵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vol. 1,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52-87.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개인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나 공동체에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와 가치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더 큰 차원의 이야기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삶의 양식 속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로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는 거대한 서사이다. 이 커다란 이야기는 개별 이야기를 아우르고, 세계와 인간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이다.

메타 내러티브는 개별 이야기들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세계를 해석하는 보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⁶ 예컨대 계몽주의는 이성의 진보를 통해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타 내러티브를,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해방과 이를 통한 유토피아 완성이라는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저마다의 거대 담론은 개별 이야기를 담아내는 보다 큰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세계관을 만들고 정당화해왔다.

물론 이러한 거대 서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비판도 존재한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 조건』에서 “포스트모던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⁷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거대 서사가 지닌 확일성과 이데올로기적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메타 내러티브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기독교 신학은 성경이 제공하는 메타 내러티브가 세상의 이데올로기적 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다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창주조의 서사라고 그 독특성을 설명한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Craig

⁶ Kevin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42-49.

⁷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xiv.

Bartholomew)와 마이클 고헨(Michael Goheen)의 말처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위치해야 한다.”⁸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명확하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간 존재를 이해한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이라는 구조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조망하며, 그 이야기 안에 개별 인생을 담아낸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이 거대한 서사가 단지 정적인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라이트에게 ‘하나님의 선교’란,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목적과 과정이 기록된 서사이다.⁹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인간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와 목적론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구속사의 이야기 틀은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근본 기반이 된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단순히 구조적 설명을 담고 있는 인식론적 도구가 아니라, 신앙의 참여를 요구하는 실천적, 실존적 이야기이다. 신앙인은 이 이야기를 믿고 해석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점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해석 패러다임이자, 존재론적 지도이며 신앙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다.

⁸ Craig G. Bartholomew and Michael W. Goheen,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Grand Rapids: Faith Alive, 2009), 12.

⁹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0), 32.

바르톨로뮤와 고힌은 말한다. “기독교는 하나의 진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고 지배해야 한다.”¹⁰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¹¹

B.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과 구성 요소

세계관이란 한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신념의 체계이다.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는 세계관을 “우리가(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에 대한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¹²이라 정의하였으며, 이것이 단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통일성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신념 체계이다.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설명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나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려는 포괄적인 시각이다.¹³ 즉, 기독교 세계관은 삶을 보는 렌즈이며, 모든 판단과 선택,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프레임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으로 구성된다.

¹⁰ Craig G. Bartholomew and Michael W. Goheen,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23.

¹¹ Ibid., 12.

¹²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5th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20.

¹³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9-10.

- 존재론(Ontology): 무엇이 궁극적으로 실재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은 그의 선한 피조세계이다.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본질을 가진다.
- 인식론(Epistemology): 인간은 어디까지 알 수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리는 계시된 것이며, 인간은 그 빛 안에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진리의 기준이 된다.
- 윤리학(Ethics):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한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나뉘어 진다. 도덕적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며 성경은 인간에게 그 근거를 제공한다.
- 목적론(Teleology): 인간과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분화된 교리나 명제로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많은 신앙인이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 조각들을 연결하여 삶 전체를 조망하는 하나의 통합된 렌즈로 만드는 데 실패한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많아 쌓아도 신앙의 세계관을 구성하지 못한 명제의 나열은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성경의 서사적 구조를 가르치지 못하면,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는 교리 암기나 정보 습득을 넘어, 이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담아내는 서사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훈을 가르치기보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대서사

그렇다면 신앙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내용(What)은 무엇인가? 성경의 거대 서사는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천이자, 그 자체로 세계관의 뼈대를 이룬다. 이 거대 서사는 ‘창조(Creation) - 타락(Fall) - 구속(Redemption) - 완성(Restoration)’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안에서 인간 존재의 기원, 문제, 해결, 미래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¹⁴ 이 서사는 앞서 B절에서 언급한 세계관의 핵심 질문들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답변을 유기적으로 담고 있다.

1. 창조(Creation): 존재의 기원과 가치를 말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야기는(창 1-2장), 이 세계가 무의미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으셨다는 선언은(창 1:26-27)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외적 조건이 아닌 창조주와의 관계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¹⁴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38-45.

이는 ‘나는 누구이며, 왜 가치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되며, 세상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청지기적 사명(창 1:28)이라는 목적론적 방향을 제시한다.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을 향한 책임적 존재임을 밝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다.

2. 타락(Fall):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에 죄와 고통이 들어왔다는 타락 이야기는(창 3장),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부조리와 개인적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깨어진 것이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근원적 죄(Sin)의 관점에서 진단하게 한다. 타락에 대한 이해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이며, 나는 왜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3. 구속(Redemption): 단 하나뿐인 해결책을 제시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창 3:15),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그 구속 계획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셨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곧 구원의 성취를 말한다(고후 5:21; 고전 15:3-4). 이 해결책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은혜의 사건임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인간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4. 완성(Restoration): 궁극적 소망을 보여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완성의 이야기는(계 21:1-4),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준다. 이 서사는 역사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성취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선포한다. 완성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목적론적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윤리적, 실천적 동력을 가지게 한다.

D. 세계관을 내면화하는 서사적 훈련방식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한 사람의 세계관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진정한 세계관의 형성은 그 이야기가 개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내면화될 때 이루어진다. 즉, 세계관은 지적 동의를 넘어, 특정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관이 어떻게(How) 한 개인의 존재를 바꾸는가에 대한 원리의 문제이다.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이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이기보다 ‘사랑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세계관의 형성을 ‘욕망 교육’이라 설명한다.¹⁵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가 탐닉하는 삶의 방향성을 말한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앞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즉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핵심은 올바른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사랑하도록 하는 ‘습관 형성(habitus)’에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러한 습관의 형성은 신앙 공동체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전례(liturgy)’를 통해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전례는 단순히 주일 예배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례는 인간의 욕망을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재배치해 나가는 반복적 실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끊임없이 소비주의자로 훈련시키는 세속적 전례를 만들어간다. 이 반복은 인간 심층에 자리잡은 무의식적 형성을 만들어낸다. 몸의 훈련이 곧,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배와 성찬, 기도와 교제 등의 전례를 통해 신앙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맞춰 조율되도록 한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며, 공동체의 예배와 삶 속에서 몸으로 재현할 때, 신앙인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¹⁵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32-39.

결론적으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인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형성의 틀(formative framework)’인 것이다. 한 인간의 삶은 그가 믿고 의존하는 이야기에 따라 형성되며, 그 이야기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¹⁶ 따라서 기독교인은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성경적 이야기꾼’인 동시에,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경적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것, 말하는 것을 넘어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의 거대 서사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¹⁶ 제임스 B. 스미스, 이대근 역, 『위대한 이야기』 (서울: 비아토르, 2021), 18.

제 III 장

시대적 도전: 현대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

A. 거대 서사의 해체와 현대 문화의 도전

20 세기 후반 이후, 현대사회는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와 보편 진리를 비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¹⁷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현대 사회를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¹⁸ 이라 정의하며, 인간 사회를 지배해 온 보편적 진리 체계가 결국 개인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진리’는 객관적 실체가 아닌 개인의 해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 되어버렸고, 이는 곧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던 세계관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즉, 거대 담론을 상실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이야기의 공백 속에서 다양한 세속적 이야기가 빈 곳을 채우기 시작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적 존재인 인간은 결국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는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라는 믿음을,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을 확산시켰다.

¹⁷ Kevin J. Vanhoozer, *Postmodern Theology: Christian Faith in a Pluralist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3.

¹⁸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xxiv.

이러한 사상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혼합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오늘날 세속적 문화 내러티브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속 내러티브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중심의 내러티브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다음의 네 가지 서사는 표면적으로는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자율적 자아(the autonomous self)’라는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대담론일 뿐이다.

첫째, ‘표현적 개인주의’의 서사이다. 현대인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공동체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자신 내면 깊은 곳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로 여겨진다.¹⁹ 이 서사 속에서 인간은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 보편적 진리나 보다 큰 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을 피조물로서, 또한 청지기로서 이해하는 성경의 인간 이해와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성경은 인간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둘째, ‘소비주의적 행복’의 서사이다. 현대 사회를 가장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자본주의이다. 이는 인간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이 서사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며, 그것이 곧 행복을 획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반면에 성경은 행복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절제’ 속에 더 큰 행복이

¹⁹ Carl R. Trueman,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 (Wheaton: Crossway, 2020), 21-45.

있음을 말한다. 성경은 인간이 끝없는 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언한다.

셋째, ‘성(性)적 자율성’의 서사이다. 현대 사회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분리를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의 문제라고 말한다. 성 정체성은 사회적 구성물이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성경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말하며, 몸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적 자율성의 사사 안에서 인간의 몸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넷째, ‘기술적 유토피아’의 서사이다. 현대 사회가 가져온 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이라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고유한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생명을 만들고 유전자를 재배열하며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 과거 인간의 영혼이나 고유성, 신비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이제 기능과 효율성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에 따라 획득한 존엄을 훼손시킨다. 과학 기술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세계관은 인간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기술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²⁰ Nancy R. Pearcey, *Love Thy Body: Answering Hard Questions About Life and Sexual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18), 87-92.

이처럼 현대 문화가 제시하는 서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자율성을 배치하였다. 그 자율성은 개인의 선택이며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각자의 영역이라 상대화하며 진리를 해체시켰다. 이제 인간은 저마다의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 성경적 세계관이 조각난 세속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인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통일된 내러티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조각난 이야기와 정체성의 깨어짐 속에서 표류하게 되었다.²¹

B. 세속 문화에 대한 성경의 대안적 응답

앞서 살펴본 현대 문화의 과편화된 서사들 앞에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삶을 통합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대안 서사(Alternative Narrative)’로 기능한다. 성경은 단지 고대의 종교 문헌이 아니라, 오늘날의 왜곡된 이야기를 교정하고 세상의 참된 실재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이야기’이다.²²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현대 문화의 핵심 질문과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한 응답: ‘창조’의 이야기

현대 문화가 ‘너는 네 안에서 너를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할 때, 창조

서사는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너를 발견한다’고

²¹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476-477.

²² N. T. Wright, *The Last Word* (San Francisco: HarperOne, 2005), 43.

선언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면의 공허한 우물을 끝도 없이 파내는 과정이 아니다. 진짜 정체성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과 목적에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 해진다. 자율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로서 청지기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끝없는 자기 탐색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 소비주의적 욕망에 대한 응답: ‘타락’의 이야기

소비주의가 ‘너의 욕망은 선하며, 더 많이 채워야 행복하다’고 속삭일 때, 성경의 타락 서사는 ‘너의 욕망은 본래 선했지만 죄로 인해 뒤틀리고 변질되었다’고 진단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지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욕망의 결핍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성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끝없이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의 한 형태임을 폭로한다.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회복만이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준다고 가르친다.

- 성적 자율성에 대한 응답: ‘구속’의 이야기

젠더 이데올로기가 ‘너의 몸은 너의 것이며, 너의 성은 네가 결정한다’고 주장할 때, 구속의 서사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 (고전 6:19-20)이라고 말한다. 구속은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몸과 성을 포함한 전인격이 자기중심적 욕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본래 목적인 거룩함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위한 회복의 이야기이다.

- 기술적 유토피아에 대한 응답: ‘완성’의 이야기

기술주의가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제시할 때, 완성의 서사는 진정한 유토피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 선포한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축적되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도래(adventus)하는 시간이며, 현재를 변혁시키는 시간이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기술이 약속하는 것은 문제의 ‘제거’이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의 소망은 불완전한 인간의 기술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처럼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현대 문화가 제시하는 조각나고 파편적인 인간 중심적 이야기에 맞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한다. 이는 인간 중심성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상들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개별 문제들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답이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응답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통합적 이야기가 지닌 힘이 드러난다. 고힌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성경을 전체 이야기로 읽지 않기 때문이다.”²³ 메타 내러티브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현실의 도전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단순히 세속 문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성경의 대안 서사를 통해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이야기하도록(Re-storying) 돕는 창조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²³ Michael W. Goheen, *The Church and Its Vocation: Lesslie Newbigin's Missionary Ecclesi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19.

제 IV 장

선행 사례 연구: 메타 내러티브의 목회적 적용

본 장에서는 제Ⅱ장에서 확립한 이론적 기반과 제Ⅲ장에서 분석한 시대적 도전을 바탕으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현대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체적인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팀 켈러(Tim Keller)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이 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제Ⅴ장에서 제시할 목회적 방법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 팀 켈러: 복음 중심적 상황화와 변증 전략

팀 켈러는 1989년 뉴욕 맨해튼이라는 세속 도시의 심장부에서 리디머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개척한 이후, 복음을 도시 문화에 적절히 상황화(Contextualization)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한 대표적인 목회자이다.²⁴

²⁴ Michael Luo, "Preaching the Word and Quoting the Voice," *The New York Times*, Feb. 29, 2006.

그의 사역의 핵심에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현대 도시 문화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복음 중심적 상황화(Gospel-centered Contextualization)’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1. 메타 내러티브 기반의 설교와 변증

팀 켈러의 성경 해석과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 메타 내러티브에 철저히 기반한다.²⁵ 그는 성경 전체가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 완성(Restoration)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며,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자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관되게 선포한다. 그는 이 구조를 통해 현대인들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창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타락)”, “무엇이 해결책인가?(구속)”,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완성)”에 대한 성경의 포괄적인 답변을 제시한다.²⁶

특히 팀 켈러는 현대사회를 사는 도시의 회의주의자들과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소개하는 변증(Apologetics)에 탁월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기되는 도시인들의 의문과 오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복음이 지닌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²⁷ 팀 켈러는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활용하여 세속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깊은 모순과 갈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오직 성경의 이야기만이 세속 문화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망에 대하여 가장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²⁵ 팀 켈러,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49.

²⁶ 팀 켈러, 오종향 역,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63-71.

²⁷ Ibid., 189.

증명한 것이다. 그의 탁월성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인의 일상과 실존적 고민에 깊이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있었다.

2. 도시 문화를 향한 선교적 적용

팀 켈러에게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변화가가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이 생성되고 전파되는 전략적 선교지였다.²⁸ 그는 복음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도시와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적 힘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상황화’를 자신의 핵심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상황화는 단지 현장의 요구에 모든 것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도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그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경쟁적 문화, 개인주의, 세속적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상처와 열망의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어떻게 그들의 성공과 실패, 정체성의 혼란,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응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했다.³⁰ 또한, 그는 도시 선교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 사회적 약자 보호, 인종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복음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복음이 개인의 내면을 넘어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공적인 이야기임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였다.³¹

²⁸ Ibid., 293.

²⁹ Ibid., 351-379.

³⁰ 팀 켈러, 최종훈 역,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7), 12-31.

³¹ Ibid., 213.

B. 레너드 스윗: 포스트모던 시대의 감성적·체험적 소통 전략

교회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및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의 접근법의 핵심은, 이성적이고 명제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소통을 통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1. EPIC 프레임워크를 통한 내러티브의 체험화

레너드 스윗은 현대인의 소통 방식에 맞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EPIC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는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Image-driven), 연결적(Connective) 접근을 의미한다. 그는 현대인의 특징을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오감을 통한 경험하기에서 찾았다.³² 또한 현대인은 수동적인 청중이 되기보다 능동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파악했다.³³ 뿐만 아니라, 논리적 설명과 이해보다는 강력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에 더 깊이 공감하는 존재이며,³⁴ 복음이 자신의 실제 삶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발견한다고 보았다.³⁵ 이 EPIC 프레임워크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딱딱한 교리가 아닌, 살아 작동되는 체험의 방식으로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³² 레너드 스윗,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0.

³³ Ibid., 89.

³⁴ Ibid., 136.

³⁵ Ibid., 170-171.

2. 관계 중심을 통한 유기적 접근

레너드 스윗은 현대 사회의 피상적이고, 제한된 관계성에 대한 대안으로 친밀함을 강조한다. 그는 복음이 친밀한 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에만 힘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넛지 전도(Nudge)』에서 복음을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자극(Nudge)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³⁶ 이는 일상 속 평범한 순간에서 질문과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전략이다.

또한, 『태블릿에서 테이블로(From Tablet to Table)』에서 디지털 기기(태블릿)가 가져다 준 표면적인 소통방식을 지적하면서, 복음은 얼굴을 마주하는 식탁(테이블)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³⁷ 그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환대와 나눔 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본다. 레너드 스윗의 전략은 복음을 프로그램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이해한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계성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C. 두 사례의 비교 분석과 본 연구의 방향성

팀 켈러와 레너드 스윗은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현대 문화에 적용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지만, 그 전략과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표는 두

³⁶ Leonard Sweet,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10), 12-15.

³⁷ 레너드 스윗, 장택수 역,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5), 20-21.

사람의 접근 방식을 요약하여 비교한 것이다.

구분	팀 켈러	레너드 스윗
접근방식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와 세속적 내러티브를 충돌시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함	스토리텔링, 이미지, 관계 중심 접근을 통해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함
주요전략	기독교 세계관이 세속적 세계관보다 더 논리적이고 포괄적임을 변증	강압적 설득이 아닌, 넛지(Nudge) 방식으로 부드럽게 유도, 오감으로 경험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함
소통대상	도시의 회의주의자, 지성인 등 이성적 질문을 가진 이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포스트모던 세대, 감성적 체험을 중시하는 이들
핵심 방법론	복음 중심적 상황화와 합리적 변증	EPIC 프레임워크와 관계 중심의 유기적 소통
결과	복음이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해답임을 문화적으로 설명함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경험하도록 감각적으로 전달함

<표 1> 팀 켈러와 레너드 스윗의 전략 비교

팀 켈러가 현대 문화의 세속적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변증적 접근’에 강점을 보였다면, 레너드 스윗은 현대인의 감성과 소통 방식에 맞춰 복음을 전달하는 ‘문화적 접근’에 탁월함을 보였다. 팀 켈러가 ‘무엇이 더 참된 이야기인가?’를 묻는다면, 레너드 스윗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경험하게 할 것인가?’ 를 물었다. 이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에 집중하기 보다는,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방법론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 두 사례는 본 연구가 접근하는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새신자와 초신자가 처음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듣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효과적인 세계관 훈련을 위하여 팀 켈러가 보여준 것처럼 비 본질적인 것에는 상황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뼈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각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레너드 스윗이 사용한 것처럼 참여와 경험이라는 자연스러운 내면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을 종합하여, 실제 목회 현장에서 통전적인 세계관 형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

제 V 장

목회 현장 적용: 통전적 세계관 형성 프로그램의 설계와 방법

앞선 장에서 확립한 이론적 기반과 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해 설계하고 적용한 통전적 세계관 형성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나눔’, ‘통성경’, ‘주함께새벽’이라는 세 가지 개별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양육 체계이다. 이는 팀 켈러의 변증적 내용과 레너드 스윗의 체험적 소통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참여자들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지적으로 이해하고(Knowing), 경험적으로 내면화하며(Experiencing), 삶으로 실천(Doing)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복음나눔’ : 내러티브를 통한 자기 이해와 복음의 뼈대

세계관 형성의 첫 단계는 성경의 거대 서사가 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특히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오던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무턱대고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없다.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 자신의 이야기로 정착되지 않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인간의 내면적 회복은 ‘삶의 이야기 재배치(narrative reloc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³⁸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상처받고 왜곡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큰 이야기 안에 다시 배치해야 하며, 그 작업이 바로 복음나눔의 핵심이다.

따라서 ‘복음나눔’은 단순한 복음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참여자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발견하며,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뼈대를 자신의 삶에 대입시키는 입문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을 ‘복음교육’이나 ‘복음훈련’이 아닌 ‘복음나눔’으로 정한 이유는, 복음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복음이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설계되었다.

1.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조

- 대상: 새신자, 초신자, 또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3~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

- 기간: 4주 과정 (주 1회, 총 4회 진행)

- 목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왜곡된 우선순위를 인식한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타락)와 하나님의 해결책(구속)을

³⁸ Nicholas Wolterstorff,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97.

이해한다.

복음을 ‘나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여정을 결단하도록 돕는다.

2. 복음나눔 4주 과정

● 1주차: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첫 시간은 참여자들이 자기소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행복했던 기억 등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경험과 각자에게 형성된 생각을 탐색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죄, 기존 교인의 모습, 지식적 한계, 권위자 경험 등)를 다루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하나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돌아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분임을 깨닫고 자신의 선입견을 점검할 준비를 하게 된다.

● 2주차: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은 삶의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과 방법에 몰두하는 실존을 직면하도록 돕는다. “최근 가장 많이 화가 났던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잔소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결혼, 직장, 진로 선택 등) 실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은 돈, 명예, 안정 등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한다. 이를 통해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문제임을 깨닫게 한다.

당신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는가?

■ 화가 나면 반드시 표현하고 표현된다. ()

■ 절대로 표현하지 않고 남들도 모른다 ()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

■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

■ 돈이 있어야 나와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 ()

■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명예

■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 ()

■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한다. ()

■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받고 싶다 ()

■ 어떤 일을 해놓고 스스로 감탄한다. ()

■ SNS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

■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

■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일하려 한다. ()

■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만 같다. ()

■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냐가 중요하다. ()

■ 때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권력

■ 사람을 대할 때 내 편이나 아니냐가 중요하다. ()

■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

■ 제일 힘든 상황은 통제가 안되고,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이다. ()

■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보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 ()

■ 인생은 좋은게 좋은 것이기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게 좋다. ()

■ 화를 잘 내지 않고, 감정이 잘 요동치지 않는다. ()

■ 정해진 규칙과 기준으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 ()

■ 굳이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할 필요는 없다. ()

■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 정말 행복한 일도, 정말 힘든 일도 별로 없다. ()

재락

■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재미'이다. ()

■ 제일 행복한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을 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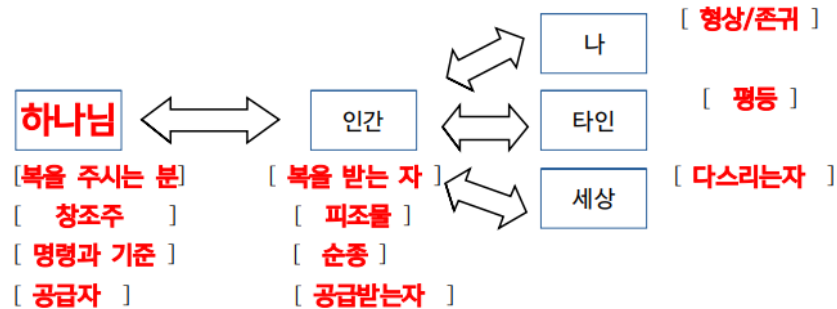
■ 재미를 추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

<그림 1> 내 삶의 우선순위 진단표

● 3주차: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

세 번째 시간은 앞선 두 주의 자기 성찰을 성경의 관점과 연결하는 단계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상태(타락)임을 나눈다. 자기계발서는 문제의 ‘열매’ (행동)를 바꾸려 하지만, 성경은 ‘뿌리’ (관계)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홀로 발버둥 치는
과정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림 2>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 4주차: “복음과 새로운 삶”

마지막 시간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복음(Good News)’을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이다. 복음은 노력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소식’임을 강조하며, 이 소식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초대한다. 참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삶의 중심과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확인하고, 예배, 기도, 말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도록 격려한다.

3. 복음나눔의 구조화: 4개의 핵심 틀

복음나눔은 매우 단순한 구조화된 4단계 흐름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우리의 타락으로 완전히 일그러졌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이다. 그런 우리의 실존을 향하여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인은 이후,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가는 과정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Good → 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 Bad → 타락: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 Good News → 구속: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 Good → 회복: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

good - Bad - Good News - Good 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복음나눔의 목표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복음나눔을 통해 초신자는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의 세계관에 대한 간단하지만, 분명한 구조를 제시받는다. 물론 이것을 통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풍성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와 맞춰본다는 점에서 복음을 향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소감을 작성하여 4주간의 과정을 정리하도록 한다. 때에 따라서 간증을 나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B. ‘통성경’ :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복음나눔’을 통해 복음의 뼈대를 세운 참여자들은, 다음 단계로 성경 66권 전체가 그 뼈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펼쳐지는지를 배워간다. ‘통성경’은 성경을 단편적인 구절의 모음이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을 가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읽어내는 훈련이다. 이는 파편화된 성경 지식을 통합하여, 삶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병호 박사의 통찰처럼, ‘통(通)’이란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³⁹이며, 이 방법론을 통해 더 자연스럽고 직접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다.

1. 통성경의 원리와 방법

- 하나님의 마음 읽기: 통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 계획, 즉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⁴⁰이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핵심이 된다.
- 전체로서의 읽기: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⁴¹는 원칙에 따라, 성경 66권을 개별적인 책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간주한다. 부분이

³⁹ 조병호, 『통이다 LET'S 통』 (서울: 통독원, 2007), 142.

⁴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45.

⁴¹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2.

아닌 전체로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인식할 때, 말씀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역사 순서에 따른 재배열: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⁴² 전통적인 정경 배열이 아닌, 성경 각 권이 기록된 역사적 순서를 고려하여 재배열함으로써,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 순 배열	20 마당	40 개 줄기
창세기	1 마당 하나님의 마음	1 과 원역사 2 과 족장사 3 과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 장~10:10	2 마당 열방을 향한 꿈	4 과 출애굽과 제국 5 과 세계선교의 꿈 6 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민수기 10:11~36 장, 신명기, 시편 90 편	3 마당 만나 세대	7 과 만나세대 8 과 만나 학교 졸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 마당 신앙 계승	9 과 약속의 땅 입성 10 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 과 교육의 성공사례
사무엘상·하, 역대상, 시편, 열왕기상 1~2 장	5 마당 천년 모범	12 과 미스바 세대 13 과 왕정의 시작 14 과 하나님의 종 다윗
열왕기상 3~11 장, 역대하 11~9 장, 시편 72, 127 편,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6 마당 마음과 지혜	15 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12~22 장, 열왕기하 1~20 장, 역대하 10~32 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7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 과 남북 분열 왕조 17 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21~25 장, 역대하 33~36 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예레미야애가	8 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18 과 남유다 멸망 19 과 잠간의 징계
에스겔, 다니엘	9 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 과 포로민 설득 21 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⁴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42.

에스라, 시편 119 편,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10 마당 재건 공동체	22 과 성전 재건 23 과 성벽 재건 24 과 고백과 침묵
신구약 중간사	11 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 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26 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마태복음 1~4 장, 마가복음 1 장~3:19, 누가복음 1 장~6:19, 요한복음 1~2 장	12 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27 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5~19 장, 마가복음 3:20~10:31, 누가복음 6:20~19:10, 요한복음 3~11 장	13 마당 한 영혼 사랑	28 과 공생애 3 년
마태복음 20 장~27:31, 마가복음 10:32~15:20, 누가복음 19:11~23:25, 요한복음 12 장~19:16	14 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29 과 마지막 일주일
마태복음 27:32~28 장, 마가복음 15:21~16 장, 누가복음 23:26~24 장, 요한복음 19:17~21 장	15 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 과 십자가 승리-하나님나라
사도행전 1~12 장	16 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31 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3 장~21:16, 데살로니가전 ·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 · 후서	17 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 과 바울의 1 차 전도여행 33 과 바울의 2 차 전도여행 34 과 바울의 3 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1:17~28 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 · 후서	18 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 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 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 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 과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요한일 · 이 · 삼서	19 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 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요한계시록	20 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40 과 최후 승리의 노래

<표 2> 성경 66 권을 역사 순 배열 / 20 마당 / 40 개 줄기로 재구성

-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달: 성경이 본래 글이 아닌 구술 이야기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김영래 박사의 지적처럼, “이야기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연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로 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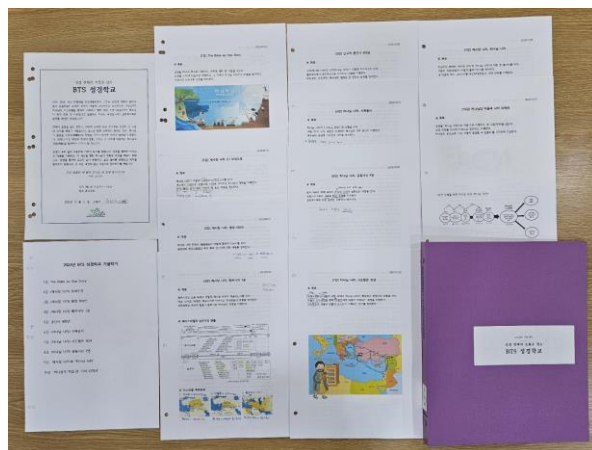
배운다. 바로 이 이야기의 구연이 스토리텔링이다.”⁴³ 복잡한 신학적 개념보다 이야기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성경의 거대 서사가 참여자들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서는 봄과 가을, 연 2회 각 10주 과정의 ‘통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는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학습하고, 교회 전체가 동일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도록 돕기 위함이다.

● 봄학기: 성경 전체의 흐름 파악하기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⁴⁴를 통해 성경 66권 전체를 20개의 마당으로 나누어 구속사의 큰 흐름을 학습한다. 10주간 모세오경부터 왕정 시대, 포로기,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조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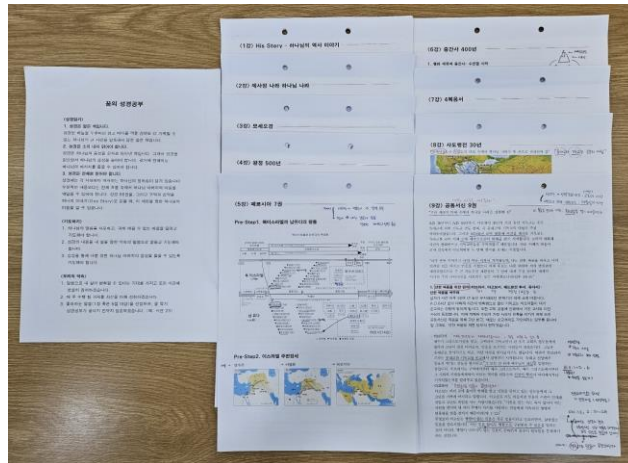
<그림 3> 통성경 봄학기 자료

⁴³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52-153.

⁴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참고.

● 가을학기: 주제 중심으로 성경 이해하기

교재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⁴⁵를 통해 ‘십자가 원 스토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등의 핵심 주제를 배운다. 이미 봄 학기에 배운 통성경의 이해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한다. 실제적으로 ‘성경기도’, ‘성경전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직접적인 신앙의 훈련으로 연결시킨다.



<그림 4> 통성경 가을학기 자료

3. 통성경 프로그램의 실천 방향

- 주일 예배 설교와 통성경 강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0주간의 기간 동안 설교 본문과 주제를 잡는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강의의 설명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오전 주일예배, 오후 성경 강의를

⁴⁵ 조병호,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참고.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가 되게 하고, 동시에 그 의미와 목적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을 한다.

- 통성경학교 기간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외부 사역을 최소화한다. 온 교회가 동일한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는 온 교우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세대에 따라 눈높이의 변화는 필요하다. 교회학교는 따로 교재를 만들기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문 등을 제공하여 신앙 교육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만 아니라 평일 가정에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한다.
- 학습한 내용을 소그룹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나누는 과정을 반드시 가진다. 이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개인의 내러티브로 정착하고 내면화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때 이야기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성경의 거대한 지도를 얻게 된 참여자들은, 이제 그 지도를 들고 자신의 일상이라는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게 되며, 이는 다음 단계인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구체화된다.

C. ‘주함께새벽’ : 일상 속 내러티브의 내면화와 실천

‘복음나눔’ 으로 복음의 뼈대를 세우고 ‘통성경’ 으로 세계관의 구조를 확립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세계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주함께새벽’은 연구자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큐티(QT)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개인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내면화하는 실천 훈련이다. 큐티는 일상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를 삶에 적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신앙인은 성경의 이야기를 매일 접하고, 그 이야기로 자신의 하루를 조망하게 된다.

1. ‘주함께새벽’ 큐티 교재의 제작 배경

이미 시중에는 큐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큐티 책자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파악하는데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책자는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의 감정과 결단에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스며드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교훈이나 시사점을 뽑아내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구성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보다는 부분적인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큐티집은 말씀의 적용마다 개인적인 간증을 적어 놓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와닿는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일부 맥락을 왜곡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 맞는 분량과 수준으로 일상 속 말씀의 내면화와 적용을 도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신앙적 성찰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큐티 교재 『주함께새벽』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교재는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시선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도전한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각 본문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큐티에 참여하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런 열심 덕분에 자칫 형식화될 수 있는 말씀 묵상이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는 신앙인이 성경으로 통전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림 5> 주함께새벽 표지 디자인(25년 4월호)

2. ‘주함께새벽’을 통한 성경 읽기와 묵상 방식

본 프로그램은 새신자도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정하고, 성경 한 권을 정해 숲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이후 교회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분량을 나누어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권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개요와 역사적·신학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후 하루에 읽을 적절한 분량의 본문을 제공하여 무리 없이 지속적인 묵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습관화 하도록 설계하였다.

- 큐티 책자가 말씀의 내용을 해설하고, 독자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매일의 본문을 읽은 후,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을 던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스스로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말씀을 깊이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 큐티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한가지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연결하였다. 묵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고 실천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한다. 그리고 적용점을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행한다.
- 큐티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지만,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함께 공유할 때 더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말씀 묵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을 구성하였고 그 안에서 큐티 내용을 풍성히 나누도록 하였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묵상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 보다 효과적인 큐티 실천을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주함께새벽’을 운영하며 매일 해당 본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묵상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말씀 묵상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림 6> 주함께새벽 유튜브 채널

이처럼 ‘주함께새벽’은 성경의 세계관이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언어로 흡수되도록 설계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습관(habitus)’으로 형성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통합적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음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결과와 분석을 다루도록 하겠다.

제 VI 장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접근과 결론에 대한 타당성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의 능력’ 으로 증명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 V 장에서 설계한 통전적 세계관 형성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자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이 남긴 소감문과 설문, 그리고 인터뷰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 자료는 단순한 수치적 데이터를 넘어서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가 각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A. ‘복음나눔’ 적용 결과 분석: 서사적 자기 이해의 시작

4 주간 진행된 ‘복음나눔’ 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라는 틀 안에서 재해석하도록 돕는 입문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의 소감문과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1. 자기 이해의 전환: ‘자기 의’ 에서 ‘은혜의 필요성’ 으로

훈련 초기, 다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괜찮은 삶’으로 인식하거나,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기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 주를 이루었다.

-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엉망이고, 어설피고, 제로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 00, 28 세, 남)
-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김 00, 33 세, 여)

이러한 고백들은 ‘복음나눔’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을 제Ⅱ장에서 논의한 성경의 ‘타락’ 서사 안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도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이다. 자신의 힘으로 괜찮은 삶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모습이었음을 깨닫는 ‘BAD’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복음(GOOD NEWS)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2. 복음 이해의 심화: ‘추상적 교리’에서 ‘나의 이야기’로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마주한 참여자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었다.

-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기 위해서는 BAD 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나의 존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 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00, 33 세, 여)
- “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잘 믿기지 않는 내용들과 추상적인 언어들을 통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드리는 시작점입니다.”
(유 00, 35 세, 여)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의 큰 이야기에 연결하는 ‘서사적 접근’은, 명제적 교리 학습보다 복음의 본질을 내면화 하는 데 훨씬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신앙 여정의 새로운 동기 부여

‘복음나눔’은 참여자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의 무기력한 신앙을 회복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특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 즉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 “4 주간의 모임은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 00, 22 세, 남)

B. ‘통성경’ 적용 결과 분석: 거대 서사의 확립

‘통성경’ 훈련은 ‘복음나눔’을 통해 복음의 뼈대를 세운 참여자들이 성경 66 권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인식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거시적인 틀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총 38 명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는, 이 훈련이 참여자들의 성경 이해 방식과 신앙적 태도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1. 양적 분석: 성경 이해 방식의 근본적 변화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인식의 전환을 분명한 숫자로 증명한다. 전체 응답자 중 91.2%가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매우 그렇다’ 64.7%, ‘그렇다’ 26.5%), 88.2%는 “강의가 성경의 각 책이나 사건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는 ‘통성경’ 훈련이 참여자들의 성경 읽기 방식을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85.3%의 응답자가 “강의를 듣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고 답한 것은,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난 이후, 성경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려준다. 참여자의 94.1%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고 응답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 질적 분석: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의 획득

수차상 드러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주관식 응답과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인식의 전환’ : 흩어진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각 사건과 인물, 책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를 향해 흘러가는 유기적인 이야기임을 깨달은 것에 가장 큰 도움과 유익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 “성경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이 00 (35 세, 여) / 주관식 응답

- “그동안의 성경 지식이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는데, 이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이전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예언서의 심판 메시지들이 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참여자 박 00 (45 세, 여) / 주관식 응답

이러한 고백들은 ‘통성경’ 훈련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일관된 틀, 즉 메타 내러티브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삶의 변화’ : 성경이 신앙인의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었다. 메타 내러티브의 확립은 단순히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을 넘어, 각자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켰다.

- “가장 큰 변화는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교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니 메시지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활기차졌습니다.”

참여자 강 00 (52 세, 여) / 주관식응답

-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예전에는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건 역시 ‘타락’ 한 세상의 한 단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구속’의 역사를 살아내야 할 내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참여자 최 00 (38 세, 남) / 심층 인터뷰

참여자 최 00의 고백은 ‘통성경’ 훈련의 핵심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그는 제Ⅱ장에서 논의한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메타 내러티브적 틀을, 더 이상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살아있는 렌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통전적 성경 읽기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신앙의 연륜을 넘어선 효과’ : 초신자와 오랜 신앙인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통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이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오랜 신앙인의 고백)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듣던 말씀, 좋아하던 구절만 봤죠. 나무만 보고 숲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성경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 처음으로 '주소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을 사는 저의 소명과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의 실패와 겹쳐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 제 기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참여자 이 00 (55세, 여) / 심층 인터뷰

- (초신자의 고백)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통성경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완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닳을 내린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제 삶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김 00 (24세, 여) / 심층 인터뷰

두 참여자의 고백은 ‘통성경’이 오랜 신앙인에게는 흠어져 있던 신앙의 지식들을 재구조화하여 깊이를 더하게 하고, 초신자에게는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메타 내러티브 기반의 성경 읽기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과정임을 알게 해 준다.

C. ‘주함께새벽’ 적용 결과 분석: 일상 속 세계관의 내면화

‘복음나눔’으로 복음의 뼈대를 세우고 ‘통성경’으로 세계관의 구조를 확립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세계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주함께새벽’은 큐티(QT)를 통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개인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내면화하는 실천 훈련이었다. 이 과정은 세계관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확신으로, 그리고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는 이 훈련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1. 신앙의 습관화: ‘의무’에서 ‘일상의 리듬’으로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변화는, 큐티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영적 리듬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에서 89.5%의 참여자가 “훈련 이후에도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큐티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신앙 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솔직히 혼자서는 큐티를 꾸준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작심삼일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유튜브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온라인 소그룹에 쫓더라도 묵상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니, 이제는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하던 숙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충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강 00 (52 세, 여) / 정기 피드백

- “가장 큰 변화는 ‘실천 계획’을 세우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대화 중에 비난을 삼가며 평화의 말을 선택하겠다’와 같은 작은 계획이지만, 이것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계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 손과 발, 입술의 작은 선택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윤 00 (29 세, 남) /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주함께새벽'이 제Ⅱ장에서 다룬 제임스 K. A. 스미스의 '전례(liturgy)'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매일의 반복적인 묵상과 공동체적 나눔, 그리고 의식적인 실천 계획 수립이라는 대안적 전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욕망과 지향이 '자기중심적 서사'에서 '하나님 중심적 서사'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세계관이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살아있는 삶의 방식으로 체화되는 과정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2. 해석의 내면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의 하루’를 조명하기

본 프로그램의 핵심 질문(“오늘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 어디에 있는가?”)은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말씀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경의 거대 서사 안에서 해석하도록 이끌었다.

- “매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가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까?’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참여자 이 00 (31 세, 여) / 묵상 나눔

-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함께새벽’을 하면서, 제 불안한 미래 역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의 이야기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믿음이 생기니,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참여자 김 00 (24 세, 여) / 심층 인터뷰

이러한 변화는 메타 내러티브가 더 이상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해석의 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공동체를 통한 성장: ‘나 홀로’에서 ‘우리 함께’로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점검하고, 주일 오프라인 소그룹을 통해서 풍성히 내용을 나누는 과정은, 묵상 나눔이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했다.

- “다른 분의 나눔을 보며 ‘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구나’ 배우게 되고, 제 삶의 문제도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제가 힘든 날에는 다른 분들이 제 묵상을 보고 기도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최 00 (38 세, 남), 그룹 대화

이처럼 공동체적인 점검과 나눔의 과정은 서로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만들어주었다. 함께 같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들이 많아졌고,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말씀을 매일 읽고, 내면화 하는 과정이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공동체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D. 종합 논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과제

본 연구가 제안한 세 단계의 통합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서 재발견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여정이었다.

‘복음나눔’ 이 신앙의 ‘왜(Why)’ 를 묻게 했다면, ‘통성경’ 은 그것을 채우는 ‘무엇(What)’ 에 대답해주었고, ‘주함께새벽’ 은 ‘어떻게(How)’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세가지 구성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실천에 큰 영향력과 실제적인 동력을 주었다.

1. 효과성 분석

세 프로그램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체성의 재정립이다. 참여자들은 ‘복음나눔’을 통해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머무는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존재의 근거를 자신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두는 근본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석의 틀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재정립된 정체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자연스럽게 제공했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라는 지도를 얻게 된 참여자들은, 더 이상 삶의 고난과 부조리를 우연이나 불운으로 여기지 않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속’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 참여자의 고백처럼,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셋째, 실천적 제자도의 동력이다. 이 새로운 해석은, 마침내 실천적 제자도를 향한 동력으로 이어졌다. ‘주함께새벽’의 반복적인 훈련은, 형성된 세계관이 추상적 신념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세계관이 머리가 아닌 손과 발,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설계한 ‘자기 이해(복음나눔) → 구조 확립(통성경) → 삶의 내면화(주함께새벽)’라는 하나의 통합적이고 점진적 과정이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는 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경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발견된 과제와 제언

물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첫째, 내용의 깊이와 분량 조절에 관한 것이다. ‘통성경’의 경우,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며 도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자의 신앙적 수준과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성의 한계이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주함께새벽’의 실천 동력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단기 집중 훈련으로 형성된 습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기 부여를 위한 후속 모임과 장기적 훈련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통성경의 경우, 1회가 아니라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체득하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또한, 각종 소그룹을 통한 자발적인 나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화 학습에 대한 요구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통성경’ 이후 성경의 특정 주제나 성경 인물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기본 과정 수료자들을 위한 선택형 심화 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과제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사례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에 기반한 통전적 양육 방식이 새신자와 초신자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신자에게도 신앙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 VII 장

결론

A. 연구 요약 및 최종 논증

본 연구는 서론에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에 기반한 통전적 양육 방식이 새신자와 초신자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효과적이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제Ⅱ장부터 제Ⅵ장에 이르는 전체 논의를 통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세속적이고 파편화된 서사가 지배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전적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고 논증하였다.

우리는 제Ⅱ장에서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완성’ 네 단계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핵심 내러티브를 살펴보았고, 세계관은 공동체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내면화되는 ‘형성적’ 과정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세속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대 문화의 도전을 분석하고,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임을 역설했다. 나아가 제Ⅳ장에서 선행 사례를 통해, 이러한 노력과 방법론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Ⅴ장과 제Ⅵ장에서 실제 목회 적용과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가 제안한 통합적 양육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자기 이해와 성경 이해, 더 나아가 일상의 실천과 삶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B.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해주고, 전체적인 구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 통합이다. 기존의 세계관 교육이 지나치게 인지적·교리적 접근에 치우쳐 있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이야기’라는 인간 인식의 근본 구조에 기초하여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교육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거대 서사가 사라져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교육 모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학적·목회적으로 구현하는 통합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실천적 적용의 모델을 제시했다. '복음나눔', '통성경', '주함께새벽'이라는 구체적인 단계적인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고 통합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계관 교육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의 세계관 교육이 이론적 담론의 차원을 넘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적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형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신앙은 지식을 전달받았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체성의 형성과 삶의 재구성을 중심에 둔 ‘형성 중심 교육(formational education)’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신앙인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C.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과 진행이 특정 신앙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 안에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를 다양한 연령과 세대, 문화와 지역을 포괄하여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훈련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관의 형성은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지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방법이 질적 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치화 된 데이터를 통한 통계적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예를 들면, 연령별(청소년, 청년 등), 지역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본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식의 수준과 배움의 정도에 따라 받아드리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문화적 이해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 추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 본 연구로부터 차후 어떤 변화의 추이가 나타나는지 알기 위하여 1년후, 5년후, 10년 후 등 지속적인 변화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삶의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계관의 형성 여부는 오랜 시간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관 변화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도구를 만들고,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D. 맺음말

이야기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이야기이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세속의 이야기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삶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묻고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명확해야 한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두라”는 것이다.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는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응답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유일하고 참된 이야기이다. 창조의 시작에서 완성의 도래까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파송하신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단지 ‘가르치는 곳’을 넘어서,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로 자라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관 훈련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시키고, 그 이야기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공동체적 사명이자, 거룩한 동행의 여정이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서사를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깊이 묵상하게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요셉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형들과 마주한다. 형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만,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세상의 인과율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의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인과율’로 자신의 서사를 재해석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시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관점의 전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부름 받은 그분의 백성이다. 바라기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이 그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발견하고, 그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 내려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1.1. 단행본

문지환. 『메타-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부산: 깃드는 숲, 2022.

서성환. 『성경적 세계관: 성경대로 생각하기』. 서울: CLC, 2016.

조병호.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이다 LET`S 통』. 서울: 통독원, 200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2. 번역 단행본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윤종석 역.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 IVP, 2011.

레너드 스윗. 유정희 역. 『넛지 전도』. 서울: 두란노, 2014.

레너드 스윗.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레너드 스윗. 장택수 역.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5.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이삼출, 민승기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서울: 민음사, 1992.
- 제임스 B. 스미스. 이대근 역. 『위대한 이야기』. 서울: 비아토르, 2021.
- 크리스 파커. 홍병룡 역.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인천: 템북, 2022.
- 팀 켈러. 오종향 역.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 팀 켈러.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 팀 켈러. 최종훈 역.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7.
- 팀 켈러 외. 오종향 역. 『운동에 참여하는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8.
- 티모 에스콜라. 박찬웅, 권영주, 김학철 역. 『신약성서의 내러티브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툼 라이트. 박문재 역.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1.3. 학위논문 및 학술기사

-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91 (2017): 141-170.
- 김창훈. 「팀 켈러의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비평적 연구」. 『신학지남』 제 88 권 제 1 집 (2021): 211-245.
- 박권서. 「메타내러티브 강해설교 방법연구: 성경적 세계관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박민정.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 (2006): 125-149.
- 박현신. 「팀 켈러의 센터처치와 북한교회」. 『기독교와 통일』 12 권 2 호 (2021): 7-38.
- 오경환. 「메타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신학적, 철학적, 교육적 의의 및 함의」. 『성경과 신학』 103 (2022): 11-44.

2. 국외 문헌

2.1. 단행본

Bartholomew, Craig G., and Michael W. Goheen.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Bartholomew, Craig G., and Michael W. Goheen.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Bartholomew, Craig G., and Michael W. Goheen.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Grand Rapids: Faith Alive, 2009.

Bauckham, Richard. *Jesus and the Eyewitnesses: The Gospels as Eyewitness Testimony*. Grand Rapids: Eerdmans, 2006.

Beale, G. K.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4.

Bruner, Jerome.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Bruner, Jerome.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Fisher, Walter R. *Human Communication as Narration: Toward a Philosophy of Reason, Value, and Action*.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7.

Goheen, Michael W. *The Church and Its Vocation: Lesslie Newbigin's Missionary Ecclesi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Green, Joel B., and Lee Martin McDonald, eds.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Guinness, Os.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Nashville: Thomas Nelson, 2003.

Keller, Timothy.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Keller, Timothy.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New York: Dutton, 2012.

Keller, Timothy. *The Prodigal God: Recovering the Heart of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Dutton, 2008.

- Keller, Timothy. *The Reason for God: Belief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Dutton, 2008.
- Lyotard, Jean-Franç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5th ed. Oxford: Wiley-Blackwell, 2011.
- Packer, J. I. *Knowing God*. Downers Grove: IVP Books, 1973.
- Pearcey, Nancy R. *Love Thy Body: Answering Hard Questions about Life and Sexual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18.
- Ricoeur, Paul. *Oneself as Another*.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Ricoeur, Paul. *Time and Narrative*. Vol. 1. Translated by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Sire, James W.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5th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 Smith, James K. A.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Sweet, Leonard.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10.
-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Nashville: B&H, 2000.
-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Trueman, Carl R.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 Wheaton: Crossway, 2020.
-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 Vanhoozer, Kevin J. *Postmodern Theology: Christian Faith in a Pluralist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Vanhoozer, Kevin J., and Daniel J. Treier, eds. *Theology and the Mirror of Scripture: A Mere Evangelical Account*. Grand Rapids: Crossway, 2010.
- Walton, John H.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Wolters, Albert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Wolterstorff, Nicholas.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6.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0.

Wright, N. T. *The Last Word*. San Francisco: HarperOne, 2005.

Wright, N. 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Wright, N. T. *Simply Christian: Why Christianity Makes Sens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6.

Wright, N. T. *Simply Jesus: A New Vision of Who He Was, What He Did, and Why He Matters*. San Francisco: HarperOne, 2011.

2.2. 학술기사

Goheen, Michael W. "The Urgency of Reading the Bible as One Story in the 21st Centur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9, no. 2 (2004): 258-264.

Luo, Michael. "Preaching the Word and Quoting the Voice."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9, 2006.

부록 1. ‘복음나눔’ 후기(간증) 일부

‘복음 나눔’ 을 마치고 내 삶을 돌아보며 (24.03.22.)

정 0 0

BAD: 팬찮아 보였던 나의 삶

복음 나눔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내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씩 고민해보게 되는 숙제와 함께 제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잘 들여다보니, 꽤 팬찮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엉망이고, 어설피고, 제로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낸 거지, 이 정도면 내가 팬찮아 보이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신실하심을 입으로는 쉽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희미했습니다.

GOOD NEWS: 복음

팬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관심이 없는데 팬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팬찮지 않으면 어떤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사람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답 그 자체 덩어리인 저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나눔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길로 준비해주신 장치들 가운데 하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 이 은혜를 맛보았으니 끝’ 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 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은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믿음이 겹겹이 쌓여가길 기대하며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나눔 소감문

김 0 0

4 주간의 복음나눔세미나를 통해 평소 알던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와 친숙하고 주변에는 신앙인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어서 말씀에 대해, 신앙에 대해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난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종종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냐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깊이 관여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발걸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연스레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현재의 선택에는 기도는 형식적일 뿐 내 뜻대로 선택했던 것이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기 위해서는 BAD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나의 존재는 그런대로 꽤 봐줄만한,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그럴듯하게 되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망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에게는 발버둥쳐서 지켜내려고 했던, 나에게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는 안정적인 삶, 돈인 것 같다.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 모으고, 성실히 살아왔던 모든 이유는 미래의 안정적인 삶이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대로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써왔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이 삶에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 주인 자리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더 이상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또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
 작은 믿음의 도전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게 하소서!

복음나눔 감상문

정 0 0

시작하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사회’의 관계만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깨닫고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만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나 자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소홀해졌는지 점점 나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음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러한 잘못을 고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남’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로 인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외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4주간간의 복음나눔을 진행한 이후 저에게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으며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지, 이러한 이야기를 무시하여 지금처럼 살지, 그리고 고민하기의 세 가지 길이 저의 앞에 있었고, 저는 고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되돌아보니 도피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언젠가 저는 ‘고민하기’라는 제3의 길이 아닌 진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확실하게 마음에 결단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4 주간의 모임은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20 년보다 더 긴 시간을 믿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언젠가 찾아올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답을 확실히 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목적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나눔세미나’ 를 마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유 0 0

무기력한 복음

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잘 믿기지 않는 내용들과 추상적인 언어들을 통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만큼 변할 수 있을까?”,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대답은 늘 “그렇다” 였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한 복음’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 : BAD

복음 나눔을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본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횃수로는 4 번밖에 되지 않았지만, 4 주 내내 내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누군가와 부딪칠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눈 뜨고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일도 잘했고, 열심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짜증 났고, 화도 났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가 휘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계획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언제나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멋진 포장지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더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이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복음 : GOOD NEWS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드리는 시작점입니다. 더 나은 내일도,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도, 내 생각에 더 나은 결정도 우선은 다 보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만을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했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인식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이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상황과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말씀이 필요하더군요. 이제야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가 커지고 커져 엄청난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능력을 갖추지도 못할 테니까요.

다시 복음 앞에!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바뀌었다고 말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출발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찌면 너무 희미해져 버린 주님을 향한 첫 마음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열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그것이 내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

부록 2. ‘통성경’ 프로그램 설문조사(객관식) 상세 결과

2023 년 가을학기 '통성경' 수료자 3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객관식 문항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객관식 문항 종합 결과표 (총 38 명)

<설문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경 전체 흐름 이해	20 명 (52.6%)	13 명 (34.2%)	4 명 (10.5%)	1 명 (2.6%)	0 명 (0%)
2.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	25 명 (65.8%)	10 명 (26.3%)	3 명 (7.9%)	0 명 (0%)	0 명 (0%)
3. 성경 각 부분의 연결성 이해	22 명 (57.9%)	12 명 (31.6%)	3 명 (7.9%)	1 명 (2.6%)	0 명 (0%)
4. 개인적 성경 읽기 동기 부여	19 명 (50.0%)	14 명 (36.8%)	5 명 (13.2%)	0 명 (0%)	0 명 (0%)
5. 성경과 삶의 연결성 이해	24 명 (63.2%)	11 명 (28.9%)	2 명 (5.3%)	1 명 (2.6%)	0 명 (0%)
6. 설교 및 성경공부 이해도 향상	22 명 (57.9%)	13 명 (34.2%)	3 명 (7.9%)	0 명 (0%)	0 명 (0%)
7. 성경 오해 및 편견 해소	17 명 (44.7%)	14 명 (36.8%)	6 명 (15.8%)	1 명 (2.6%)	0 명 (0%)
8. 강의 길이 및 난이도 적절성	18 명 (47.4%)	15 명 (39.5%)	4 명 (10.5%)	1 명 (2.6%)	0 명 (0%)
9. 주변 사람에게 추천 의향	27 명 (71.1%)	9 명 (23.7%)	2 명 (5.3%)	0 명 (0%)	0 명 (0%)
10. 프로그램 지속 희망	28 명 (73.7%)	8 명 (21.1%)	2 명 (5.3%)	0 명 (0%)	0 명 (0%)

부록 3. ‘통성경’ 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자료

1. 주관식 설문 응답 (주요 내용 발췌)

질문 1: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참여자 A, 48 세, 남): “성경 66 권이, 특히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서사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전에는 욥기는 욥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이렇게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모두 한 퍼즐의 조각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B, 29 세, 여):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이전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예언서의 심판 메시지들이 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C, 55 세, 여):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속 사건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성경이 마치 한 편의 대하드라마처럼 느껴져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질문 2: 통성경 강의를 통해 내 신앙이나 삶의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참여자 D, 34 세, 남): “성경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큐티 본문만 겨우 읽었는데, 이제는 전체 흐름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E, 41 세, 여): “가장 큰 변화는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교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니 메시지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활기차졌습니다.”

(참여자 F, 38 세, 남): “일상의 문제들을 성경의 큰 이야기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 같은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단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속’을 살아내야 할지 기도하게 됩니다.”

2. 수료자 심층 인터뷰 녹취록 (주요 내용 발췌)

사례 1: 최 00 (38 세, 남, 직장인)

연구자: 통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여자 최 00: 네. 이전에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냥 화만 났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하면서 분노하거나 낙심했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깨어진 세상, 즉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현실이구나' 하고 먼저 진단하게 됩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분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깨어진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구속'을 살아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할까? '**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더군요. 이게 제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례 2: 이 00 (55 세, 여, 주부/오랜 신앙인)

연구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통성경이 어떤 점에서 새롭게 다가왔나요?

참여자 이 00: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0 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듣던 말씀, 좋아하던 구절만 봤죠. 나무만 보고 숲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성경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 처음으로 **'주소를 찾은 기분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을 사는 저의 소명과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의 실패와 겹쳐

보이면서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 제 기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제가 감당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사례 3: 김 00 (24 세, 여, 대학생/초신자)

연구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참여자 김 00: 처음에는 방대해서 겁이 났는데, 오히려 큰 그림을 먼저 보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진리는 상대적인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통성경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에서 시작해서 '**완성 '**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닳을 내린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제 삶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록 4. ‘주함께새벽’ 프로그램 설문 및 인터뷰 자료

1.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 설문 결과 (N=45)

설문 문항	훈련 전	훈련 후	변화율
1. 주 3 회 이상 개인적으로 QT를 한다.	11 명 (24.4%)	40 명 (88.9%)	+64.5%p
2.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18 명 (40.0%)	42 명 (93.3%)	+53.3%p
3. 나의 삶을 성경의 큰 이야기와 연결하여 생각한다.	5 명 (11.1%)	38 명 (84.4%)	+73.3%p
4. 신앙적 나눔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느낀다.	15 명 (33.3%)	41 명 (91.1%)	+57.8%p

2. 큐티그룹 인터뷰 녹취록 (주요 내용 발췌)

진행자 (연구자): ‘주함께새벽’ 훈련이 이전의 개인적인 큐티와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참여자 A (30 대, 직장인): “가장 큰 차이는 ‘질문’ 이었어요. 이전 큐티는 그냥 좋은 구절에 밑줄 긋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주함께새벽’ 은 ‘이 말씀이 창조-타락-구속-완성 중 어디에 속하는가?’ 를 계속 묻게 하니까, 본문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시편의 시를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가 아니라, ‘아,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갈망하는 신자의 처절한 목소리구나’ 하고 해석하게 된 거죠.”

참여자 B (50 대, 주부): “저는 공동체 나눔이요. 솔직히 혼자서는 큐티를 꾸준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작심삼일이었죠. 하지만 매일 온라인으로 서로의 묵상과 실천 계획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의 나눔을 보며 ‘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구나’ 배우게 되고, 제 삶의 문제도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제가 힘든 날에는 다른 분들이 제 묵상을 보고 기도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C (20 대, 대학생):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이전에는 묵상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서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화 중에 비난을 삼가며 평화의 말을 선택하겠다’ 처럼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그걸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니까, 제 삶이 정말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 손과 발, 입술의 작은 선택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연구자): 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여자 A (30 대, 직장인): “제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드라마 속 조연이 된 느낌인데,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제 삶의 성공과 실패에 덜 연연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B (50 대, 주부):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루를 살아간다는 감각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하게 돼요.”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onghoon Shin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une 5, 1985

Parent's Names: Joongsun Shin, Younggeum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Undergraduate :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Th.	March 2, 2004 – February 18, 2010
Graduate :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March 2, 2012 – February 18, 2014
Doctoral Studies (In Progress) :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Ph.D.	March 2, 2024 – Present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Donghoon Shin

March 3, 2025